



극예, 노래, 춤에 능통한 최초의 대중연예집단!

## 2010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 안성시지부회,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한마당' 에서 오리고기 시식 및 판매

글·사진·편집부

경기도 안성시내 강변공원에서서는 '남사당 쟁 바우덕이 쟁'이라는 주제로 '2010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열렸다. 올해 바우덕이 축제는 9월 6일, 전야제인 곰뱅이토기 의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개최됐다.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남사당 6마당놀이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몸으로 배우는 풍물놀이, 줄타기 체험 및 악기 강습, 살판, 탈놀음 등으로 구성된 멋진 공연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 옛날장터를 재현하여 체험, 교육장소로 제공했으며 1,500명 이상의 풍물인이 참여하는 '바우덕이 전국 풍물 경연대회' 등 축제기간 내내 200개가 넘는 이벤트가 펼쳐졌다.



● 2010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행사장'에 참여한 안성시지부회 ②오리 알 및 오리훈제 시식행사를 하고 있는 안성시지부회  
 ● 행사장을 찾은 이들이 오리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④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오리탈 ⑤안성남사당 공연 모습

깊어가는 가을, 바우덕이 축제에서 신명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속에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우리협회 안성시지부회는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한마당에서 소비자들에게 오리고기 시식 및 판매 활동을 펼쳤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오리훈제 뿐만 아니라 평소 먹어보지 못한 오리 알 시식행사로 축산물 장터를 찾은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했다. 또한 가정에서 오리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오리 레시피 책자를 배부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맛있는 오리육 제품들을 판매해 추석명절을 맞은 이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안성시지부회는 이번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참여

를 통해 '오리고기는 외식업체에서 먹는 요리'라는 소비자들의 오리육에 관한 이미지 환기 및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확대시켰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인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대내적으로는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와 하합에 초점을 뒀으며 대외적으로는 바우덕이 브랜드화와 남사당 상품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축제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내년을 기약하며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폐막됐다.